

■ 한가위 특집 / 연휴 잇고 제주 지키는 사람들...

# “도민의 풍성한 추석, 우리 보람이죠”

### 제주해경 조애리 경장 5002함 타고 경계 근무

### 한라산관리소 박계택 팀장 “탐방객 안전 만전 기할 것”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다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본다는 들뜬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있다.

해상에는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과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관 160여명이 경비함 등에 탑승한 채로 24시간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주시 지역 해상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2함이 지난 9일부터 지키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06함이 지난 6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직원(왼쪽)들과 제주바다 경계근무중인 제주해경.

일부터 13일까지, 5002함은 추석 당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교대로 근무에 나선다.

또 추자도와 마라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 등의 안전을 위해 300t급 경비함정과 소형경비함정 등이 투입돼 인근에서 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추석 당일 바다로 향하는 서귀포 경찰서 5002함 소속 조애리 경장은 “명절 기간에 가족들 곁을 지키지 못

해 죄송스럽지만, 내가 바다를 지키고 있어 다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조 경장은 지난 2009년 제주로 발령받아 4년을 근무하고 장원으로 돌아갔으나, 제주의 기억을 잊지 못해 작년 3월부터 다시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 경장은 “남들 쉴 때 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아쉽기도 하지만, 모두가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즐

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계 근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에서도 명절을 잇는 채 바쁜 업무를 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32명이 3개 조로 어리목, 관음사, 영실, 성판악 등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등의 업무도 해야 한다. 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 10여명이 항시 대기한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공원운영팀 박계택 팀장은 “명절 연휴 기간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직원들도 당연한 업무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연휴 기간 차레를 지낸 후 한라산을 찾을 탐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주령주령 매달린 미니사과 11일 제주시 오동동 한 주택에 미니사과들이 주령주령 매달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여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교육청 교사 110명 선발

제주지역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110명이 선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2020학년도 신규교사는 유치원 교사 13명과 초등학교 교사 8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9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8명을 포함해 총 11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 1명과 초등학교 교사 6명, 특수교사(유치원) 1명, 특수교사(초등) 1명은 장애분야로 구분해 선발한다.

2020학년도 선발 규모는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정원과 정원·명예퇴직 및 휴·복직 상황 등을 고려한 2020학년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고인원은 교육부 배정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사전예고한 85명보다 25명이 늘어난 규모이다.

응시원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제주대, 2020학년도 수시 경쟁률 평균 4.3대 1

제주대학교는 지난 10일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1559명 모집에 6781명이 지원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

률 4.3대 1(1587명 모집, 6787명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모집단위별로는 학생부종합(일반 학생전형) 수의예과가 2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해 27.0대 1로 가장 높았

다. 이어 실기위주(지역인재전형) 체육교육과가 2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 20.5대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수의예과가 9명 모집에 181명이 지원해 20.1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 제주공항 도로·지하차도 개설 본격 시행

### 제주시 “공항~용문로 구간 도로·동서 지하차도 발주” 총 250억 투입 2021년 개통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용문로 구간 도로개설과 동서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지난 5일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날이 급증하는 이용객 증가로 공항입구 교차로 구간이 상습 정체되는 등 교통체증이 심각해 대대적으로 확충 등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시는 공항주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용역과 교통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하구조, 시설측면, 교통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계획이었던 남북 고가차도에서 동서 지하차도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예산 절충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통해 국비 75억원(2018년 35억, 2019년 40억)을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26일 사업계획 변경(고가차도→지하차도) 승인을 최종 완료했다.

시는 지하차도와 미개설구간인 공

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병행 추진에 따라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75억, 지방비 175억) 투자계획으로, 부족분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02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체 연장 길이 900m(폭 30~39.5m) 도로개설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인 공항우회도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구간(450m)을 포함했으며 지하차도의 길이는 Box구간 95m, U타입 옹벽 구간을 포함해 520m이다.

입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이 제한되며, 제주지역 건설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도내업체 49%이상),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로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 뿐만 아니라 신광로터리 및 노영로터리를 경유해 평화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제주 시내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 흐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 “국토부와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 공론화 시행하라” 105개 시민단체 성명

국토교통부가 내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며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1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4년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 입장만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묘연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제주의 문제는 도민들이 결정하는 도민 공론화가 대안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